

< 녹 취 전 문 >

과제명	2017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구술자명	한병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면담자	전상보	면담장소	한병채 변호사 사무실
면담일시	2017. 09. 14.	회차	1회차

1. 제9차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소가 들어간 배경

면담자: 재판관님, 바쁘신 데도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들어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그 때는 내가 야당 대표로. 또, 여당 되고는 여당 대표로 헌법 제정 특별위원회에 내가 들어있었고, 개정 헌법 만들 때는 내가 법사위원장인가를 하고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여기에서 헌법 개정의 특징은 소위 3권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 독일과 같이. 그래야 장기 집권하고 독재 정권의 출현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때 노 대통령도 좋다. 내가 여당이니까, 좋다고 그러고 야당도 좋다고. 그 때는 민심을 수용하는 헌법을 만들었거든. 권력이 반영되는 헌법은 거의 없어요. 민중 시위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한 거는 헌법재판소를 두는 거 그거 하나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헌법을 만든 거지. 우리나라 헌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면담자: 그 때 직선제 개헌을 같이 주장하신 분은?

구술자: 아, 그 때 직선제를 하느냐, 내각 간선제를 하느냐 당 내에서 하고 있을 때, 군부 일부에서는 ‘직선제를 하면 다음 정권을 내줘야 한다.’하는 세력들이 ○○○이 하고 뭐 여럿이 있었어요. ○○○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하고 군부에서도 ○○○이나 몇 분들이 국민의 열망대로 이번에는 직선제를 해야 된다. 직선제 해도 당선이 된다. 그래서 직선제를 채용하는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도 설치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100% (percent)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권력에 의한 헌법이 아니라 민의에 의한 헌법을 만든 것이 현행 헌법이에요.

면담자: 그 때 관여했던 학자는 김철수(金哲洙)?

구술자: 김철수(金哲洙), 그 서울대학 교수하고 몇 분들도 우리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지.

2. 조규광 소장 인선 배경

면담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조규광(曹圭光) 소장님이 임명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술자: 그 당시 헌법을 개정할 때, 노태우(盧泰愚) 씨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때 민정당 대표가 윤길중(尹吉重) 씨였다고. 윤길중(尹吉重) 씨하고 나하고 노 대통령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의논할 때, 그러면 사법부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래서 대법원장은 정기승(鄭起勝) 씨를, 헌법재판소장은 한병채(韓柄燾)를, 이렇게 하고 출범을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기승(鄭起勝) 씨가 대법원장 후계 선출을 하는데 낙선이 됐어요. 그 때는 대통령도 놀래고 윤길중(尹吉重) 씨도 놀랐고 나도 놀랐고. 여당이 뭐 뒤집어졌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겠느냐. 앞으로 또 헌법재판소장에 나도 된다는 보장을, 어떤 의미에서 정기승(鄭起勝) 씨보다 내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은 사람인데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윤길중(尹吉重) 씨 하고 노 대통령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소장 자리를 내놓을 테니까 이번에는 대법원장하고 소장을 무난하게 선출, 야당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추천을 하자. 이래가지고 내가 추천한 것이 이일규(李一圭) 씨하고 조규대(曹圭大) 씨를 추천을 했어요. 청와대 하고 당에서 알아보니까 이일규(李一圭) 씨는 나이가 많아서 임기를 못 채운다 하더라. 그리고 조규대(曹圭大) 씨는 고집이 너무 세서 조규대(曹圭大)보다는 조규광(曹圭光)이가 더 낫다고 모든 여론이 그렇더라. 그래서 그 말은 맞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일단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이일규(李一圭) 씨는 대법원에서 원만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나중에 후임자 한 분, 대법원장 더 추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일규(李一圭) 씨를 하고 재판소장은 조규광(曹圭光) 씨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이 났지. 그래서 무난히 이제 선거를 다 치렀지.

3. 청사마련 과정

면담자: 다음은 재판관님께서 청사의 건축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청사를 짓게 된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술자: 우리가 헌법재판소 출범을 했는데, 옛날 헌법위원회 MBC 정동 뒤에 있는 청사 2 개 층을 빌려 쓰는데 그건 도저히 사무실로 쓸 수가 없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쪽 법무사 사무실? 거기에 몇 개 층을 써라. 근데 우리가 no라 그랬지. 헌법재판소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출발부터 국민 이미지(image)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다음 헌법재판소를 지을 때까지 누가 봐도

그럴 듯한 데를 앉혀야 된다 해서 서울시하고 청와대에서 몇 군데 추천한 걸 다 제끼고 사대부고 학교 그 전체를 달라. 거기서 임시로 헌법재판소 들어가고. 헌법재판소 건물을 건립하는 데는 서울시에서는 여러 군데를 추천을 했다고. 이쪽에 양재동도 대지를 내주고, 몇 군데 다 돌아보고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니까 청와대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동격인 위치에 건립이 돼야 된다. 이래서 물색을 하다가 옛날 소위 왕족이 살던 집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병원이 있던 지금 헌법재판소 자리를 다오. 그 때 서울시에서 이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그랬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야기해서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자리니까 위치 좋은데 앉혀야지, 구석진 데 앉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서울시한테 양보 받아서 거기다가 지었지. 현재 있는 자리에 지었지.

면담자: 지금 있는 자리가 상당히

구술자: 진짜 역사적인 자리고 또 풍수지리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근데 그걸 자꾸 옮긴다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구석진 데로 옮기면 헌법재판소 권위도 상실합니다. 현재 위치가 좋은 위치입니다.

면담자: 청사를 건축하면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건축을 하는데 부정이 끼면 건축이 안 되니까 건축 관계를 소장이 나보고 책임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건축 관계 할 때 아무것도 부정이 끼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돌 있지 않습니까? 돌도 제일 좋은 거로. 그리고 내부의 재판관들 방도 청와대에서 쓰던 백두산 나무, 그거를 대통령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로 하고. 지을 때 상당히 여유 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요즘 벌써 좁다 하대?

면담자: 현재 직원이 3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구술자: 300명 넘어도 거기 충분할 건데? 그 때 한 400 - 500 명 수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좁다고 탄 데로 옮긴다는데.

면담자: 옮기는 건 아니고요. 그 옆에 도서관을 새로 지어서.

구술자: 그래도 되고 도서관을 그 위층으로 올려도 되는데. 그 건물이 4-5층 올려도 되게 굉장히 단단하게 지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건물이. 벽에 목재나 돌이라든지 내부 목재라든지 모든 걸 그 때는 청와대에서 특별히 지시해서 아무나 그 청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로 소장하고 나하고 다 와서 보고, 또 짓는 사람이 성당을 짓는 사람이고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 그 사람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든든하게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려도 되고 옆으로 지어도 되고. 옆에 빈 터가 있다고.

4. 국회 날치기 사건 관련 일화

면담자: 다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국회 날치기 사건이.

구술자: 응, 있었지.

면담자: 그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국회에 현장검증을 가신 게.

구술자: 아, 그 때 국회 날치기 사건 때문에 야당에서 헌법소원을 냈거든?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자 그래서 야당에서 국회 날치기 현장검증 신청을 했는데, 그 때 소장하고 다른 모든 재판관이 국회가 어떻게 그걸 하느냐, 내가 무슨 소리 하느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국회 의장하고 국회하고 현장검증을 다 했지. 그 때만 해도 국회의장 하던 ○○○ 씨도 나한테 떨어진 사람이니까, 국회의원. 국회의원 중 나보다 더 선배가 거의 없었다고. 전부 후배고, 또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직원이고 국회의원이고 감히 누구도 거절을 못 했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현장검증을 다 했지. 어떻게 국회 현장검증을 하러 가느냐고 신문도 떠들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그래도 되겠느냐고 겁을 내고 이랬을 때 가든 말든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그 때는 다 했지.

5. 국회 및 청와대 대응

면담자: 재판관님께서서는 국회에서 4선 의원이시고 또 위원회 위원장도 두 번이나 하시고.

구술자: 그 때 법사위원장도 내가 했고 또 5공 때는 국회를 모두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새로 만들었잖아. 만들 때 정치인들 전부 다 묶고 여당 대표 몇 명, 야당 대표 몇 명, 네 명 씩만 살렸다고. 야당 대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남고, 여당은 정래혁(丁來赫) 씨가 중심이 돼가지고 네 명이 살아나고. 나머지는 전부 뭐 군인들이 들어오고 이랬다고. 그래서 국회 있을 때도 내가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고 ○○○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내 뜻대로 했지, 국회에서도.

면담자: 재판관님께서서는 주로 국회 관련된 부분을 많이, 교통정리를 하셨고.

구술자: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회에 가서 심의를 받고 예산을 타오니까 국회에 대해서 모두 두려워했거든. 청와대와 국회를 두려워했는데, 국회와 청와대는 내가. 국회 관계 되면 내가 앞장서서 하니까 국회에서도 의장이고 뭐고 다 나한테는 큰 소리 못 치고 다 응했지.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좀 떠들고 하기는 해도 그 때는 뭐 무난하게 아무 탈 없이 그렇게 했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관사도 내가 이야기해서 주고 다 했잖아.

6.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

면담자: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더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구술자: 헌법재판소라는 게 우리가 도입을 할 때 3권 분립으로는 민주주의가 수호가 안 되니
까. 정권 연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래서 소위 독일의 헌법재판소처럼
나치(Nazis) 정권이 다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나라로 치면 소위 장기집권을 하는
독재정권이 안 들어서도록 3권을 견제하는 기관을 두자. 그래서 장기집권을 방지하
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체제를 만들려면 헌법재판소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가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감히 아무도 손 못
대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그 후에 군사변동, 민중 시위가 있어도 헌법재판소는 아무
도 손을 못 댔잖아. 그만큼 지금까지 권위를 잘 지켜왔지. 그런데 그 후에 몇 몇 사
람들이 내부에서 권력에 아부한다고 떠들고 해서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긴 했지.
헌법재판소는 권력에 아부하면 안 돼요. 대통령한테도 아부하면 안 돼. 우리 있을
때는 노 대통령이 참 그런 건 고맙게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씩 꼭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했잖아. 그리고 헌법재판소 의견을 듣고, 또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우리 헌법재판소 의견을 100% (percent) 받아줬어요. 그래
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도 하고 건물도 짓고 다 할 수 있었죠.

면담자: 장시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